

전주매일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음 2월 17일) 제17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조기 대선 돌입 원내 5당, 후보 선출 분주

- 민주당 - 내달 4일부터 결선투표 후보자 확정시 3일 즉각 발표
- 자유한국당 - 31일 전대선 선출
- 국민의당 - 내달 초 최종 조율
- 바른정당 - 28일 후보자 확정
- 정의당 - 심상정 후보로 결정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에 따라 원내 5당이 대선 후보 입정 논의를 더욱 서두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일정을 확정지었고, 국민의당은 최종 조율 중이며, 정의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을 '완전국민경선' 형태로 치른다. 대의원, 권리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 '1인1표'의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당선권위는 일부 후보들의 반발을 샀던 2차 선거인단 모집기간을 10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이들은 오는 25일 호남권 ARS 투표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수도권,강원,제주 순회투표)까지 전국 순회투표 및 ARS 투표를 진행한다. 만약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4월 4일부터 7일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같은 달 8일 전국대의원 현장투표를 통해 대선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결선투표 없이 후보가 확정될 경우 4월 3일 즉각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의 비율로 여론조사로 예비경선을 치른다. 이를 통해 3인의 본선 진출 후보를 뽑아 오는 19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 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갖는다.

본선 후보 3인을 대상으로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50%의 여론조사를 통해 31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이다.

예비 경선 등록은 13일부터 15일까지



화이트 데이, 하얀 백설기로 13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1층에서 열린 백설기데이 기념행사서 새내cker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백설기를 전달하고 있다.

합수있지만, 28일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확고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길을 열었다.

국민의당은 4월 2일과 5일, 9일을 세안을 두고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전 선거인명부 작성 없는 현장투표 80%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방식의 경선 룰 원칙을 합의했으며, 13~14일 이들 간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국민의당은 오는 21일까지 중복투표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25일부터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다는 목표로 세부 진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오는 28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한다.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최근 바른정당 경선룰로 국민정책평가단(국민대표선거인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 안을 최종 결정했다. 경선룰에 따라 바른정당은 19일 호

남권, 21일 영남권, 23일 충청·강원권, 24일 수도권을 돌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케이' 형식의 후보자 검증 정책 토론회를 연다.

대선 예비 후보들의 권역별 토론회는 국민정책평가단 4000명의 전화 투표로 평가받는다. 투표 결과는 이틀날 오전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25~26일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벌이고 28일 서울에서 당원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 지명 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대표를 대선 후보로 결정했다. 심 대표는 지난달 16일 압도적인 지지로 정의당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정의당은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당원 투표를 통해 대선후보 경선을 벌인 결과, 심 후보가 총 투표자 1만239명 중 8,209표(80.17%)를 득표해 강상구 후보(1,962표)를 꺾고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안재용 기자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박근혜 파면 결정,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이번 진통 통해 보다 성숙하게 거듭날 것”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을 배웅 나온 동료 재판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직원들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고 자리를 떠났다. <관련사진 3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1층 청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이 권한대행은 서기석(64·11기), 조용호(62·10기) 재판관 등 동료 재판관 7명을 비롯해 현재 직원들 모두와 악수를 하며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직원들 박수 속에 악수를 모두 마친 이 권한대행은 별도 소감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현재를 빠져나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재판관 임기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가리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람과 포용으로 서로를 깨우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공직을 떠나는 이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 없이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시스

무진장 시외버스 요금 인하

도, 전격 결정... 시간·경제적 절감 교통편의 증진 기대

다음달 중순부터 진안과 장수, 무주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이 인하되고 소요시간도 단축된다.

전북도는 13일 진안, 무주, 장수지역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전격 결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가 올해 연초 시군방문 시 현장중심으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 때 시외버스 요금인하 요구가 있었다.

송 지사는 이후 해당 지역 도의원인 김현철 의원과 백경태 의원, 양성민 의원과 함께 버스조합 및 운수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도민들의 건의가 반영되게 됐으며, 이에 요금 인하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김민근 기자

요금인하의 적용대상은 전주에서 진안, 장수, 무주지역을 운행하는 12개 주요노선이며, 전주~진안 기준으로 편도 900원의 절감, 소요시간 약 6분의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요금 인하로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의 7만여 도민과 연간 30만 명정도의 해당노선 이용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주에서 위 해당지역 간에 운행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일반국도에 비해 900원 정도의 요금이 절감됨에도 운송업체에서 수익금 감소와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등의 손실을 우려해 그간 계속 일반국도를 운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전북도가 운송회사의 손실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키로 하면서 이 같은 노선변경 및 요금인하가 결정되게 됐다. /안재용 기자

매일 INDEX

3면 - 탄핵불복 박근혜의노림수 4면 - 전주시 감정노동자보호조례 제정 16면 -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순조

www.2017worldtaekwondo.com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태권도원

세계태권도성지 muju